



한국후지제록스-네오다큐, 인천 세미나 개최 가변 솔루션 ·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80여 업체 주목'

국내 디지털 인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우에노 야스야키, www.fujixerox.co.kr)는 전문 인쇄 업체 네오다큐(대표 이주희, www.boancap.com)와 함께 지난 11월 2일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귀빈웨딩홀 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 인쇄 사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네오다큐
이주희 대표

한국후지제록스
신상헌 상무

한국후지제록스와 네오다큐는 이번 행사에 참가한 인천지역 인쇄 전문 업체 대표 80여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쇄 시장의 향후 변화 및 가변 인쇄 솔루션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도큐컬러 1450 GA, 700i DCP 등 디지털 인쇄기 신제품과 가변 인쇄 소프트웨어 익스엠피(XMPie)를 활용해 제작한 캘린더, 카드, 포토북 등 다양한 1:1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을 전시했다.

후지제록스의 가변 솔루션 경험 공유
이날 행사에서 네오다큐 이주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인천에서 20년 이상 인

쇄 사업을 운영하며 느낀 것은 인천지역의 인쇄 업체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 편이라는 것과 지역 인쇄 물량의 상당수가 서울, 경기 등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네오다큐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최근 한국후지제록스 디지털 인쇄기 컬러 800 프레스와 가변 솔루션을 도입했고, 이 경험을 다른 업체들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후지제록스 신상헌 상무는 “디지털 인쇄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인쇄 사업을 지속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인천지역의 인쇄 업체들이 디지털 인쇄를 통해 수익성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후지제록스가 다양한 솔루션과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디지털 인쇄 시장 동향·디지털 솔루션 ‘눈길’

세미나는 한국후지제록스 PS영업사업부 김홍석 부장의 디지털 인쇄 시장 동향의 주제 발표와 한국후지제록스 SA부 컨설팅팀 이상덕 대리의 XM-Pie 및 PSM(PrintShop Mail) 소개 및 시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가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상장과 수료증 출력 등의 솔루션 시연과 애플리케이션 전시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가변 인쇄를 통해 제작할 수 있는 인쇄물의 다양성에 놀라워했다. 또한 불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쇄 사업의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국후지제록스는 향후 인천인쇄 정보산업협동조합 등과 협력해 디지털 인쇄 교육을 지원하고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인천 지역 인쇄업계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한다는 계획이다. ☞